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3일(수) 총 9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안성희 ☎440-67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에
미술사가 목수현 선정”**
 - 올해부터 인천시장 상으로 상격 높아 -
 - 인천시립박물관에서 4월 1일(금) 시상식 및 포럼 개최 -

인천광역시시는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제9회 수상자로 본상에 미술사가 목수현, 특별상에 모란미술관 이연수 관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이경성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상이다.

2013년 미술사학자 조은정을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 이래, 작년까지 여덟 번에 걸쳐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 등에게 수여돼 왔다.

특히 올해부터 수상자 선정에서 시상식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천시가 주관하고 직접 운영함에 따라 그간 운영위원회 명의로 주어졌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올해부터 인천시장이 직접 수여하는 한편 본상 수상자에게 처음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2022년 제9회 본상 수상자로 미술사가 목수현과 특별상 수상자로 모란미술관장 이연수를 선정했다.

본상과 특별상 수상자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열·미술평론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순·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서 논의를 통해 선정됐다.

본상을 수상한 목수현 미술사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근현대 시각문화와 미술, 제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에 천착해왔으며, 최근에 펴낸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2021, 현실문화)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또한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직지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 발간 사업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미술 현장에서의 소임도 놓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양식사 중심의 기존 미술사 연구를 시각문화 전반으로 확장시켜 미술의 개념, 미술과 사회의 관계 및 역할 등을 재고케 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이론과 현장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통합적 미술사 연구의 길을 개척했다”라고 목수현 미술사가를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이연수 모란미술관장은 1989년 모란미술관을 설립한 이래 국내외 170여 회에 달하는 전시회 개최 및 각종 창작 지원과 발간 사업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내 사립미술관계를 이끌며 한국의 ‘미술관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아끼지 않았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서는 동 대학교 회화과 겸임교수를 맡는 등 미술 교육가의 길도 걸어 나갔다.

심사위원회는 “모란미술관이 조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미술관으로 발전하는데 업적이 크며, 미술행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이경성 선생을 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공로는 한국 미술계의 패턴으로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라고 특별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이론가상인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6주년 기념일인 4월 1일 오후 3시 박물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본상 수상자)이 수여된다.

또한 시상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시상식 연계 포럼 ‘이경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서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김현숙 이용노연구소장,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3월 24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www.incheon.go.kr/museum) 혹은 유선(☎ 032-440-6736)으로 신청하면 된다.

[붙임] 참고 자료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 본 상 수상자 : 목수현(미술사가)

■ 특별상 수상자 : 이연수(모란미술관 관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제정 경위

석남(石南) 이경성(李慶成, 1919-2009) 선생은 1919년 인천 화평동에서 태어나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과 미술사를 수학하였다. 그는 1945년 해방 직후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개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의 개관, 홍익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의 개설, 국립현대미술관의 개관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술행정가이자 교육자였다. 또한 그는 한국 근대미술사를 처음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근대미술사의 불모지 속에서 수많은 논문과 작가론을 쏟아낸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였다. 무엇보다도 이경성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척박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때로는 현실에 강력하게 대결하고, 때로는 현실을 널리 포용하며, 한 시대 미술문화를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석남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석남미술이론상을 제정·운영한 바 있다. 그의 사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못함을 아쉬워한 후학들이 석남 선생의 뜻을 기리고 이어받는 동시에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의 미술이론가를 격려하고 존경하는 취지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이에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 제정되었다.

■ 2022년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 목수현

목수현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가로서 19세기 말 20세기 한국 미술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급 미술, 양식사 중심의 기존 미술사 연구를 태극기, 화폐, 미술관 제도 등 시각문화 전반으로 확장시켜 미술의 개념, 미술과 사회의 관계 및 역할, 근대의 시각 상징 등을 재고해 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박물관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박물관학 연구의 정초를 구축하는데도 공헌한 바가 크다. 최근에 펴낸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 : 한국의 국가 상징 이미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역작이라 평가된다.

또한 목수현의 미술사 연구는 이론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 근현대 미술가 구술 사업에서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 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근대미술 전시에는 기획 및 내용 구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거나 작품 조사와 선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의 참여와 기여도 역시 높다. 이를 통해 미술가, 작품, 시장, 수집, 아카이브 등 통합적 미술사 연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석남 이경성 선생이 생전에 현대와 고전,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이론가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술관과 박물관을 아울러 연구하고 활동하는 미술사가 목수현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수상자로 판단된다.

■ 2022년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 특별상 수상자 : 이연수

이연수는 1990년 개관한 모란미술관의 관장으로 그동안 국내 사립미술관계를 이끌며 한국의 '미술관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모란미술관이 조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미술관으로 발전하는데 업적이 크다. 미술관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 지원, 청소년 교육, 출판, 작품 수집, 보존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한국 현대 조각사 연구 등 학술적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모란미술관에서 근무했던 학예 인력들이 오늘날 한국 미술계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큐레이터 양성의 측면에서도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그는 미술관 행정가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계의 패트런으로서도 존경받을만하다. 특히 석남 이경성 선생을 2000년부터 미술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술 원로로서 극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고 후에도 모란미술관 내에 묘소를 조성하고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시상식 개최를 후원하는 등 석남 이경성 선생을 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로는 한국 미술계에 길이 남을 선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관 운영되는 첫 해에 이연수 관장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것은 미술계에 뜻깊고 훈훈한 일이라 생각된다.

■ 2022년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 목수현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졸업

경력

- 직지정보박물관 학예실장
도쿄예술대학 객원연구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전작도록) 발간 사업 책임연구원
- 현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사
현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



수상

- 2014 김복진 미술상

논문

-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박사논문, 2008)
- 「망국(亡國)과 국가 표상의 의미 변화」 (『한국문화』 53권, 2011)
- 「전통과 현대의 다리를 놓다 : 석남 이경성의 미술사 인식」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집, 2011)
- 「경계에 선 정체성 :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의 중국 조선족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3집, 2012)
- 「일제 강점기 국가 시각 상징물의 위상 변천 - 애국의 아이콘에서 상표까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집, 2014)
- 「"한국화"의 불우한 탄생 - 미술의 정체성을 둘러싼 표상의 정치학」 (『동아시아문화연구』 62호, 2015)
-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 연구 보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6집, 2018) 외 다수

공저

- 김영나 편,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 국사편찬위원의 편,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두산동아, 2008)
- Junga Woo, Kyunghye Pyun ed. *Interpreting Modernism in Korean Art : Fluidity and Fragmentation*, Routledge, 2021
-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미술 1900-2020』 (국립현대미술관, 2021) 외 다수

저서

-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 : 한국의 국가 상징 이미지』 (2021, 현실문화)

■ 2022년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 특별상 수상자 : 이연수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경력

- 숙명문화재단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겸임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사)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
(사)한국박물관협회 이사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 현재 모란미술관 관장
현재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고문



수상

- 2000 남양주시장 표창 (지역문화발전 기여)
2003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사립미술관 창설 및 운영 공로)
2016 국무총리 표창
2017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유공 표창)

모란미술관 설립 및 운영

- 1989 모란미술관 설립
1990 모란미술관 개관
1992 모란 국제조각 심포지움 개최
1993 모란미술관 청소년 미술학교 창설
1995 모란미술상 제정
1996 <오늘의 한국조각> 연간 기획전 기획
1997 모란조각상 제정
- 1989년 ~ 현재 국내외의 170여 회 전시 개최 및 창작 지원, 교육사업 등 운영

발간사업

- 『모란미술관 총서 001-김복진의 예술세계』 (2001)
- 『모란미술관 작품집 001-석남이 그린 사람들』 (2002)
- 『모란미술관 작품집 002-칠 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2003)
- 『모란미술관 총서 002-한국 현대 조각사 연구』 (2007)
- 『1990-2020 모란미술관 30주년』 (2020)

■ 시상식 및 포럼 개최

- 일 시 : 2022. 4. 1.(금), 15시 (※ 포럼 14시)
- 장 소 : 인천시립박물관 로비 (※ 포럼 석남홀)
- 내 용
 - 제9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연계 포럼 '이경성을 기억하는 사람들' 개최
 - 기조발표 '석남 이경성의 생애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연관성 및 의미' (최은주 대구미술관장)
 - 주제발표 1 '미술관장 이경성' (김현숙 이응노연구소장)
 - 주제발표 2 '박물관장 이경성'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 초청장

